光日春秋

정종섭

권력형 비리수사 제대로 하라

박연차 사건이 연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법이 힘이 없고 권력만이 만무하던 시절 권력형 부정부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권력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뿌리고, 권력의 핵심부는 그 돈을 받았다. 그 돈의 액수도 보통사람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해졌다. 뒤늦게 착수한 검찰의 수사로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이른바 실세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은 돈들이 이러한 사회악을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하는 검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점이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들까지 이러한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검찰권행사에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는 국가적인 범죄이고, 달리 용서할 길이 없다. 국민은 검찰 내부의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고 특별검사제도도 법제화하여 수사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검사사건을 보면, 당시에 저질러졌던 비리와 부정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부정은 평범한 국민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거대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과 돈을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하여 합동으로 저질러져 온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힘없는 보통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허가 하나 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 행정관서의 잘못을 하나 바로 잡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해야 겨우 해결될까 말까한데, 이들이 저지른 짓을 보면, 순진하게 사는 우리 국민만이 바보가 된 것이다.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바친 결과가 결국 권세 잡은 자들과 돈 가진 자들이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빚어진 것이다. 입만 열면 상대를 부도덕하다고 공격하고 부패했다고 목청을 높이고, 정의나 진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자기 비판세력을 부정부패한 사람들로 몰아쳤는데, 그들이 바로 이 엄청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친인척이 항상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늘 수사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람이 내놓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행동하였다. 지난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사면이 남용되었다.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편이라고 사면해버렸다. 법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었다.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도대체 이런 사면 같으면 무엇 때문에 사면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권력이 불법을 덮은 결과가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여야 한다. 겉으로는 정의니 진보니 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탈세와 비리를 저지르고, 최고 권력이 돈을 받고 이러한 비리를 덮은 거짓에 대하여 분노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분노하여야 하는 것은 왜 이런 사건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그때도 경찰과 국세청도 있었고, 검찰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과연 몰라서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였는지 하는 점이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단순히 관련된 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거악의 뿌리는 뽑지 못한다. 지난 정부의 검찰은 무엇을 했으며, 이 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은 이번 수사를 하기 전까지 왜 그냥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또 '야당탄압'이니 '음모'라느니 하는 말들로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한다. 국가적인 거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에게는 한점의 숨김도 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야 옳다.

검찰의 수사는 시작되었다. 검찰도 천명했듯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사람이라도 예외없이 수사해야 한다. 만일 현 정부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여 고려하다가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가 법과 질서를 강조하였듯이, 진정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말하려면 이번에 검찰은 법의 모습을 똑바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명운을 걸고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 〈서울대 법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광양·부산항 '투포트시스템' 포기안돼

광양항과 부산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포트(two port)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가 항만시설 과잉과 관련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립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항만개발의 기본틀을 수립해 항만개발전략과 규모 등을 추진한다. 즉 광양항과 부산항의 물동량을 고려해 효율성이 높은 항만을 선택해 집중투자하겠다는 얘기다. 광양항의 경우 물동량 면에서 부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정부의 지원순위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3 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는 광양항 개발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잣대로 한 항만개발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 물동량이 적다고 해서 부산항 중심의 '원포트 시스템'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물류 불균형은 물론 그로 인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효율성만을 고집한다면 광양항을 축소하려는 '명분 쌓기'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원포트 정책을 간헐적으로 제기해 광양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구로 육성하는 '투포트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포트 정책'을 흘려 광양항을 흔든 것이다.

광양항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동북아 시대의 전략항만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지리적인 여건은 세계 경제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권과 동남아의 물류비 절약과 자연재해 등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또 최근 광양항이 배후단지 개발로 활성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투포트 시스템'을 흔들어선 안 된다.

학비 못내 학업 포기한 학생 급증한다는데

최근 경제난이 깊어지면서 장기간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등 기본적인 교육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도내에서 1년간 학비(1인당 90만~130만원)를 체납한 고교생은 전체 7만1천527명 중 264명(0.4%)에 이른다. 이는 2007년 43명(0.06%)보다 무려 6.6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수업료 장기체납자 수는 도내 전체 고교생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만642명이 ▲법정면제 ▲일반감면 등으로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숫자다.

문제는 돈이 없어 학교를 떠나는 고교생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174명에서 2007년 238명, 2008년 288명 등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광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정사정 때문에 학교를 떠난 광주지역 고교생은 2006년 663명, 2007년 742명, 2008년 888명 등 증가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극빈층과 차상위계층 자녀는 학비가 면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서민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올해는 학비 체납과 경제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더욱 늘 게 뻔하다.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기에 수업료 때문에 배움을 중단하는 일은 당사자는 물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더욱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부르짖으면서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우리 자녀들이 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신 빈곤계층의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수업료의 매월 분할 납부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병희

기침 예절

낮기온이 높아지면서 매화꽃도 작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일찍 피어 만개했고 산수유, 목련, 개나리가 꽃봉우리를 터트리고 진달래, 벚꽃도 얼굴을 내밀고 있다. 봄이 되면서 아침 낮의 일교차가 심해지고 건조하며, 생활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져 겨우내 한가했던 소아 청소년과의 진찰실에도 환자가 늘어 부산해진 모습을 보인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를 시작하는 새내기의 경우 개인위생에 관련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집단생활, 단체급식 등으로 식중독이나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수인성 전염병 등의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3~5월에 환자 발생이 주로 증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한다. 특히 깨끗하지 않는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며,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흔히들 저희 소아 청소년과에서는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하는 등의 상기도염, 기관지염, 심하면 폐렴으로 병원에 오고, 아픈 증상이 해결될 쯤 해서 토하고 설사하는 다른 장염 증상이 발생해서 힘들어 하거나 입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는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이 조금만 상태가 좋아져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균을 옮기고, 옮겨 받기를 하게 되고, 이병 저병 아픈 치레를 하면서 면역력을 얻고 커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환자를 보면서 예의상 마스크를 쓰고 볼 수 없어서 여러 차례 기침하는 환자들로 부터 직간접적으로 얼굴로 손으로 침세례를 받아서 독감이 오기도 하고 가볍게 가볍게 몇 번의 아픈 증상을 겪고 지나간다.

많은 환자가 대기해야하는 병원 대기실의 환경에서는 여러 질환들이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로 비말감염, 공기전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남에게 옮기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착용해야하며, 기침할 때에 티슈나 손수건으로 가려야하고, 코 풀고 난 뒤와 기침하고 난 뒤에는 손을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티슈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침할 경우 타인에게 타액이나 분말이 묻지 않도록 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다.

'기침 예절'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되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가르쳤으면 한다.

외출이 늘어나는 요즈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고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 사랑이 필요하다. 〈미래아동병원장〉

기 고

신기호

'글로벌 광주' 초석을 놓자

화사한 봄꽃들과 함께 광주, 나주, 목포, 담양, 장성, 광양, 순천을 비롯해 호남지역 전역에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Universiad) 유치열기의 훈풍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계 대학생의 스포츠 종합경기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오는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캐나다 에드먼튼과 대만 타이페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대한민국 광주로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

첫 번째 이유인 즉 광주·전남의 호남인 모두가 하나되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기를 염원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직장마다 거리마다 U대회 유치를 위해 기초질서 캠페인, 거리캠페인, 유치를 염원하는 홍보물 설치를 비롯해서 이번 만큼은 호남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결연한 유치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두번째로 FISU 실사단에서 중점적으로 점검 확인할 내용인 도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접근성, 정부의 지원, 도시환경, 경기장, 유치열기 등이 모두 세계 어느 도시보다 우월하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염주지역의 다양한 경기시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동신대, 동강대, 목포대, 대불대학교를 비롯한 체육시설, 영광 스포츠타운, 나주종합체육센터, 목포 국제축구센터, 순천팔마체육센터 등 광주·전남의 운동경기장의 인프라는 세계 어느나라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을 보았으며, 세번째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경쟁도시들은 수년 전부터 아시안게임, 세계육상경기, 세계엑스포, U대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여 행사를 개최한 결과 이제 2단계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광주도 이번만큼은 글로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이 될 세계 120여개국에서 1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광주를 직접 찾아와 문화를 체험하는 그자체만으로 유·무형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U대회를 우리광주가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문화첨단 산업도시 맛과 예향의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될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차치하고 라도 전반적인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게 되고 기존 시설도 개보수 등을 통하여 엘리트 체육인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인의 경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확충 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으며 U대회가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2015년 우리 광주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가 개최되면 세계모든 국가의 대학생을 비롯한 세계인의 이목이 광주로 모이면서 세계속의 광주로 발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한사람 한사람 힘을 합하여 세계속의 1등 광주로 도약의 발판을 굳히기 위해 반드시 유치 되었으면 한다. 〈광주광역시 체육지원과장〉

無等鼓

제살 깎는 유통시장

영어로 카니발리즘 (cannibalism)이라 불리는 식인(食人)은 인간이 인육(人肉)을 상징적 식품 또는 상식(常食)으로 먹는 풍습을 말한다. 이 말은 식인종으로 알려진 카리브해의 카리브족(Caribis)에서 유래했다. '카리브'가 에스파냐인들의 발음 착오로 '카니브(Cannib)'가 되고, 여기서 '카니발(cannibal·식인자)'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때문에 식인풍습은 오지 원주민의 야만성의 지표가 됐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식인은 발견된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자식을 낳는 족족 집어삼킨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나폴레옹 군대도 러시아 침공 당시 인육에 손을 댔다. 중국서도 청나라 말기까지 인육이 공공연히 시장에서 유통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기근이 들 때 식인하는 이들이 나타나거나, 부모가 중병에 걸렸을 때 신체의 일부를 봉양했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권좌를 지키기 위해, 죽은 자의 힘을 뺏으려고, 배가 고파서,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고 압축할 수 있겠다.

혼자 살자고 동족을 먹는 행위는 자기 부정, 자기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식인하는 뉴기니 포어족에게 찾아오는 광우병 비슷한 쿠루(Kuru)병이 그 증거다.

카니발리즘은 식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다. 경제행위 중에서도 발견된다. 마케팅 용어로 제살깎아먹기식 영업을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코카콜라가 오리지널 코크를 판매하다가 다이어트 콜라 같은 유사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기존 매출의 일부를 잠식하는 경우다.

광주의 유통업계도 심각한 제살깎기에 시달리고 있다. 백화점에 만족하지 않고 마트, 아웃렛, 슈퍼 등 새로운 점포를 무분별하게 늘린 결과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불결한 모텔, 위생당국 철저한 점검 필요

이런저런 일로 불가피하게 밖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모텔에 들어가면 적잖은 불결함에 고개가 내둘러진다.

한번은 모텔에서 퀘퀘한 냄새가 나기에 확인해 봤더니 홑청 이불에 머리카락과 알 수 없는 얼룩이 돼있는 걸 발견했다. 그냥 우연히 거기만 좀 더러운 것이려니 했으나 시트 담요를 뒤집어 보고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 그 밑바닥은 거무퉤퉤한 색깔과 얼룩이 천지였는데 이것은 한동안 사용하던 시트를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사용중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트를 뒤집어 사용할 경우 시트 세탁 주기가 2주일이라면 한달로 늘려 쓰게 되니 여러 사람이 몸을 부대끼며 자는 동안 각종 인체의 냄새가 배고 쩔어붙어 악취를 풍긴 것이다. 결국 그날 역겨움에 침대에서 내려와 방바닥을 대충 훔친 뒤 거기서 자고 나왔다.

이런 건 위생당국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업소들 스스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일 아닐까?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 결제 카드' 적극 이용을

지난 25일부터 '후불 하이패스카드' 서비스가 시작돼 고속도로 통행료의 후불 결제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플러스카드를 집어넣어 사용량만큼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별도의 충전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로이용자는 통행권과 함께 수납원에게 제출하거나 카드인식기에 접촉하면 된다. 한 달 동안의 이용요금은 후불 교통카드처럼 카드 결제일에 결제된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기존 차량용 단말기(OBU)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구형 기종은 잔액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 등과 무관하며 카드에 해당 금액이 충전된 것은 아니므로 유념해야 한다.

현재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롯데, BC 등 8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 운행을 위해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이용문의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5·www.excard.co.kr)

▲이재나·한국도로공사 나주·문평영업소 (금일기업)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